

# 송병준 “코스닥 활성화, 벤처 성장 고려해 신중·균형 설계”

(벤처기업협회장)

## 벤처기업협회, 기자간담회

세그먼트·중복상장·상예강화 신중론 “자금조달·성장경로 직결” 우려 제기 “코스닥, 코스피 2부 리그 같이” 진단 성장·기술시장 색깔로 대등경쟁 강조 R&D 핵심인력 주52시간 예외 촉구

벤처기업계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코스닥시장 제도의 신중한 설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세그먼트 분리·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요건 강화 등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경로에 직결되는 만큼 속도와 세부 설계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성장 특성과 자금 조달 구조를 고려해 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표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등으로 나눠 기업을 등급·강등하며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코스닥 승강형 세그먼트’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다산다사의 원칙에 따라 요건 미달 기업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외형적인 시기총액, 현재 주가 수준 등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하기엔 벤처기업들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정책이 세부적이고 정밀하지 못

하면 역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으로 여는 정책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업계는 벤처생태계 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특정 섹터에만 정책 자금과 투자가 집중돼 생태계 내 불균형 우려가 큰 만큼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섹터의

혁신벤처들이 골고루 기회를 얻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코스닥에서 우량기업이 떠나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코스닥은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 처럼 돼 가고 있다. 미래, 성장, 기술 등 코스닥만이 갖고 있는 색깔로 미국의 나스닥처럼 코스피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경직성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닥터 크·스타트업 현장에선 속도와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라며 “근로자 보호와 건강권은 지키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 기술혁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D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벤처금융 확대 ▲민관 협력 기반 규제혁신 ▲코스닥 체질 개선 ▲창업 저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송 회장은 “현 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한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거 채택된 점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벤처협회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벤처 생태계의 도약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AX브릿지위원회’를 별도로 꾸렸다. 또 벤처금융포럼을 중심으로 투자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회원사 2만개 돌파 ▲벤처 1000억기업 1000개사 시대 개막 ▲벤처 기업 4만개사 돌파라는 새 이정표를 기대하고 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무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교한 정책으로 번역하고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싱크탱크가 돼 우리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K-푸드, AI 스마트제조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 중기부·CJ 등 얼라이언스 출범 농식품부·식약처 등 범부처 동참 제조·기술기업 민관 플랫폼 구축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민간 기업들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AI+ 똑똑한 공장쇼’를 계기로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중소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 김용재 식약처 차장과 CJ제일제당 김찬호 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겸 샘표 박진선 대표,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장이자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임팩스 이상호 대표 등 정부·협회·기업 대표들이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비전 선언’을 통해 식품산업의 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K-푸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데이터와 AI 기반 제조혁신 추진 ▲제조기업·기술기업·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현장 중심의 실증 및 성과 확산 ▲대한민

국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 선도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중기부는 K-푸드 제조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AI 기반 스마트제조 대표모델 확산, 수출지향형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식품 제조혁신과 긴밀히 연계해 원료 농축산물 생산부터 유통·외식·소비에 이르는 식품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식약처는 스마트 HACCP의 신속한 등록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스마트 GMP 현장 적용

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현장의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확산해나간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는 식품산업의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뷰티, 패션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확산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구 차관은 “스마트한 식품산업을 기반으로 레시피·기술·컨텐츠 등 경험 전체를 산업화해 전 세계의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K-푸드의 글로벌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 국가 브랜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한유원, 중소 뷰티기업 판로 지원 강화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팝업 시작 비클린 협업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중소 뷰티기업 팝업스토어를 열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0일 한유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비클린(BeCLEAN)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유동 인구가 많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시작으로 여러 지점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에는 총 50개의 뷰티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지원 품목은 화장품, 향수, 바디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와 이너뷰티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된다.

참여기업은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 제품을 알리고 현장 반응을 기반으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다듬을 수

있다. 추가로 판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비클린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으로도 이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판교대로 누리집에서 지원자격과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유원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오프라인 기획전, 온라인(더현대Hi)입점, 마케팅 역량강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판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많은 소비자가 모이는 핵심 상권에서 열리는 팝업스토어인 만큼 제품 홍보가 절실한 뷰티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판매 경험과 소비자 반응이 기업의 다음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우수한국·뷰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왼쪽 6번째)이 지난 9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열린 ‘제6회 INNO-Wave IR’에서 참석 기업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 이노비즈협회,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지원

제6회 INNO-Wave IR 개최 유망 기술기업 5곳 참여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 투자 연계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제6회 INNO-Wave IR’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한 ▲제타모빌리티(레이더 기반 AI 센싱 솔루션)

▲에프엘씨(반도체 후공정 본더 장비 및 핵심부품 개발) ▲네모즈랩(디지털 기반 K-POP 앨범 플랫폼) ▲탈레스테크(AI 반도체 패키징용 초정밀 레이저-검사 장비) ▲제닉스큐어(차세대 AAV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가 참가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주요 투자기관 및 벤처투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기업별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김승호 기자

## 교원투어

### 여행이지, 이지멤버스 론칭

EASY 페스타 30일까지 진행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 ‘이지멤버스(EasyMembers)’ 론칭을 기념해 ‘EASY 페스타(이지페스타)’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10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이번 EASY 페스타는 ▲이지멤버스 가입 고객 한정 혜택 ▲라이브 방송 ‘이지타임’ 예약 고객 혜택 ▲이지페스타 특가 및 추석 얼리버드 상품 ▲교원 빨간엔 도서 키트 증정 ▲토스페이 결제 시 즉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먼저 페스타 기간 내 이지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가입비(6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3만 포인트를 돌려주는 포인트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공영홈쇼핑

### 렛츠고 코리아 행사 진행

예선 점수 맞으면 경품 증정

공영홈쇼핑이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영홈쇼핑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한민국이 속한 A조 예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렛츠고 코리아’ 행사를 진행한다. 예선 3경기의 점수를 맞추면 경기당 정답자 200명을 추첨해 빙수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6월 중 공영홈쇼핑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응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에게는 적립금 1000원도 즉시 지급한다. 12일부터 25일까지는 ‘골든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모바일 앱에서 매일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